<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석유화학 가동률 조정의 의미"

동남아 경제위기와 내수시장 위축으로 석유화학 감산이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CC를 비롯한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은 6월11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석유화학제품 가격폭락 대응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나아가 6월15~16일에는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석유화학 관계자들이 홍콩에서 「폴리올레핀」 감산방안을 논의했다고 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석유화학 공급과잉에 대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심화돼 공급과잉이 극심해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가동률 조정을 통한 공급감축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도 없는 상태이다.
현대석유화학은 이미 6월초 제2 NCC를 포함 NCC 100만톤 플랜트의 가동률을 20~30%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고, LG화학도 6~8월 PVC 비수기를 맞아 가동률을 80~9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98년들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P-X 메이커들이 감산에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정유 5사도 내수판매 위축 등에 따라 원유 정제설비(CDU) 가동률을 평균 95% 수준으로 낮추었다.
PVC는 국제가격이 97년6월 톤당 800달러를 고비로 하락, 최근에는 500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의 PVC 메이커들은 97년부터 감산에 들어가 현재는 86%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P-X 감산은 줄을 잇고 있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이다. P-X 가격은 동아시아 기준 97년 1/4분기 톤당 488달러에서 98년에는 290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채산성은 고사하고 플랜트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며, 앞으로 톤당 150~200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현대정유는 6월부터 P-X 30만톤 공장 가동률을 20%정도 조정키로 했고, 쌍용정유는 5월20일부터 20~25% 감축해 생산하고 있으며, LG정유도 가동률을 20% 줄였다. SK는 3월부터 P-X 공장 가동률을 90%로 낮췄으나 6월에는 제1기 35만톤 및 2기 30만톤 플랜트를 모두 정기보수 형식으로 한달간 가동을 완전 중단했다.
SK는 1개월간의 정기보수 이후에도 추가로 가동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고려석유화학도 3월이후 원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 제2기 18만톤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P-X 생산량을 생산능력의 60% 정도로 줄이고 있다.
석유화학공장 가동률 조정은 IMF 한파를 맞아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 말부터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동남아의 경제위기에 인도네시아 사태까지 겹쳐 수출가격 하락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의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NCC, P-X, PVC 뿐만 아니라 PP, PE 등 범용 합성수지 전반의 감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8년6월 현재 PP를 비롯해 LLDPE, HDPE 가격은 톤당 500달러 이하로 하락했거나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튼튼한 내수시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LDPE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LDPE 시장은 필름용 내수가 상당히 견고했으나, 국내 메이커들의 환율폭등을 이유로 한 지나친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급락해 「자업자득」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합성수지 가격이 톤당 5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일면 당연할 것이다. 관련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석유화학기업들은 현 시점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 공장가동률을 조정해 수습에 나섰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은 과거의 전례(전과)가 있어 공장가동률 조정이라는 당연한 대응책 모색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석유화학을 필두로 폴리머 생산기업들이 94년3월부터 96년 말까지 3년여동안 수급 및 가격카르텔을 자행, 「IMF사태」라는 오늘의 국난을 초래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은 가동률 조정에 앞서 94년 「카르텔」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8/6/22>